SH, SF 둘다 AB에 안들어감

SH는 타자가 희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번트 댔을 때

SF는 타자가 친 플라이볼에 의해서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을 때 -> RBI 올라감

HOLD

Save 조건이 충족되어있는 상황에 올라와서 리드를 지킨 투수

SAVE

3가지 save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 상태에서 경기 마지막에 던진 투수

1. 팀이 3점차 이하로 리드 중일 때, 1이닝 이상 투구

2. 루상의 주자와 현재 타석에 있는 타자, 그리고 다음 타석에 들어올 타자까지 득점에 성공했을 때 동점이나 역전이 될 때

3. 3이닝 이상 효과적인 투구를 펼쳤을 때

SP

선발투수는 보통 100개 전후로 던진다.

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은 최소 5이닝 이상 투구를 하고 팀이 리드하고 있을 때 내려오며, 팀이 한 차례도 동점을 내어주지 않고 경기에 승리했을 때

패배요건은 어떤 이닝이든 팀이 지고있는 상황에서 내려오며, 팀이 동점을 한 차례도 만들지 못하고 패배했을 때

완봉은 무실점 9이닝 투구

완투는 실점에 관계없이 9이닝 투구

팀마다 선발투수는 보통 5명이며 로테이션 형태로 순서대로 등판한다.

그래서 보통 4일 또는 5일 쉬고 등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양한 구종을 가지는 것이 요구됨(최소 3가지)

꼭 공이 빠르지 않아도 제구력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가능(유희관)

그러나 빠른공을 가지고 있으면 강력한 무기.

이닝을 길게 끌어나가야하기 때문에 게임을 운영하는 능력이 요구됨.

포수의 리드와 투수 개인의 경험이 중요할 수 있음.

RP

중계투수는 최대 30~40개 정도 던진다. 애초에 적은 이닝을 소화하기 위해 등판한거라 완급조절없이 전력투구를 한다.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본인이 등판해있는 상황에 팀이 역전을 하거나,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팀이 다시 역전을 했을 때. 또는 선발투수가 5이닝 이상 던지지 못하고 내려가고, 본인이 등판해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갔을 때

홀드, 세이브 가능

경기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 필승조 : 가장 실력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 팀이 근소한 차이로 리드하고 있을 때

2. 추격조 : 그 다음 실력, 팀이 지고있을 때

3. 패전처리/승전처리조 : 팀이 큰 점수차로 이기고/지고 있을 때

선수활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 릴리프 : 조금 긴 이닝(1이닝 이상)을 던질 수 있고, 선발 투수가 내려간 뒤 바로 올라 오는 선수

2. 셋업 : 마무리 투수 전에 등판하는 투수

3. 마무리 : 팀의 리드를 지키기 위해 등판하는 선수(보통 마지막 이닝에 등판)

CP

마무리 투수는 중계투수 중 하나로 팀이 경기를 리드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투수.

보통은 팀마다 한 명이 맡음. 특수한 상황에서는 집단 마무리 체제를 가동하기도 함.

150km 이상의 빠른 볼을 던지는 유형의 투수가 많음. (정우람 제외)

현재 엔트리 총 인원 수 33

엔키엘두크기롯삼슼한

투수 16/17/14/15/15/14/17/16/17/14

포수 3/3/3/3/3/3/3/3/2/3

내야수 8/7/10/9/7/10/8/8/8/8

외야수 6/6/6/6/8/6/5/6/6/7

외국인 선수

올해부터 3명 보유, 3명 출전

10개 구단 모두 선발투수 2명, 타자 1명

3명이 에이스급 활약하면 우승80퍼, 2명이 에이스면 60퍼, 1명만 에이스 우승불가

투수 지표

1. ERA(Earned Run Average) 방어율, 평균자책점

9이닝을 기준으로 했을 떄 투수가 평균적으로 내주는 점수.

선발투수 기준 3점대면 괜춘, 2점대면 개잘함, 1점대는 MVP, 선동열은 0점대

2. 승리 : 10승이면 괜춘, 15승이면 개잘함, 20승이면 MVP

3. WHIP : 이닝 당 출루허용률

(볼넷 개수 + 안타 개수) ÷ 등판 이닝수

타자 지표

1. 타율

안타를 만들어낼 확률. (안타 수 / 타수 = 타율)

타율 2할8푼이면 평타, 3할이면 좀치네, 3할2푼 잘치네, 3할5푼 미쳤네, 그 이상 MVP (2020기준)

2. 장타율

1루타를 1, 2루타를 2, 3루타를 3, 홈런을 4로 계산하여 합한 수를 타수로 나눈 값.

{1루타의 개수 x 1 + (2루타의 개수 x 2) + (3루타의 개수 x 3) + (홈런의 개수 x 4)} / 타수.

타수당 몇 루를 진루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수치.

장타율이 0.500인 타자가 있다면 장타를 칠 확률이 50%라는 것이 아니라, 타수마다 0.5루의 진루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

4. 출루율

타석에서 출루할 확률

(안타 + 볼넷 + 사구) / (타수 + 볼넷 + 사구 + 희생플라이)

에러, 야수선택으로 인한 출루는 카운트되지 않는다.

일단 출루를 해야 타점을 만들고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지표

보통 타율보다 높은 경우가 많음. 4할 초중반정도면 많이 높음.

5. OPS

출루율 + 장타율

보통 거포유형의 타자들에게 적용하는 지표

보통 1 이상의 지표가

투수유형

1. 던지는 손

- 우완 : 오른손 투수, 우타자에 강함

- 좌완 : 왼손 투수, 좌타자에 강함, 왼손 투수가 오른손 투수보다 희소성이 높음, 좌완 파이어볼러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온다.

2. 던지는 팔의 높이

- 오버스로 : 가장 평범한 투구폼, 팔을 위로 올려서 투구, 키가 클수록 유리, 위에서 내려찍는 느낌

- 쓰리쿼터 : 오버스로와 사이드암 중간 위치에서 투구, 오버스로와 크게 차이 없음

- 사이드암 : 팔을 허리높이에 두고 투구, 공의 움직임이 큼, 볼끝이 더러움, 임창용이 뱀직구인 이유, 중계투수인 경우가 많음, 좌완 사이드암은 없음(KBO리그에 1명있음), 우완 사이드암이 던지는 공은 우타자가 보기에 자신의 몸쪽에서 출발 하기 때문에 치기 어려움, 반대로 좌타자는 치기 쉬움, 그래서 선발투수로 잘은 안나옴(있긴 있는데 90프로가 오버스로, 쓰리쿼터).

- 언더스로 : 팔을 사이드암보다 더 낮게 내려서 투구, 매우 희귀함, 제구력이 들쭉날쭉함, 그래서 선발투수로 잘 안씀(KBO리그에 1명있음), 반대로 제구만 잘되면 겁나 좋음, 좌완 언더는 없음(한번도 본 적 없음)

3. 투구 스타일

- 파이어볼러 : 강속구 투수, 직구 최고구속 150km 이상, 힘으로 타자를 제압, 빠른 공일수록 정타가 되었을 때 타구의 비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뜬공이나 홈런이 자주 나올 수 있음, 제구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음, 나이가 들면서 구속이 저하하기 때문에 30대 넘어가면 거의 없음. (김광현)

- 기교파 : 제구력 중심,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 원하는 곳으로 찌를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변화구를 활용해서 타자들을 제압, 컨디션이 안좋아서 제구가 안되는 날에는 배팅볼. (류현진)

타자 유형

1. 타격 부문

- 홈런 타자 : 장타력이 높은 타자, 클린업

- 컨택 타자 : 장타보다는 공을 맞추는 능력이 뛰어나서 안타를 잘 만들어 내는 타자, 테이블 세터

- 발빠른 타자 : 발이 빨라서 출루하면 도루로 투수를 괴롭힐 수 있고, 득점을 잘 올리는 타자.

- 우타자 : 가장 많음.

- 좌타자 : 상대적으로 우투수에 강함. 우투좌타가 많음.

- 스위치 : 양타. 매우 희귀한데 잘못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음.

2. 수비 부문

- 수비불가 : 은퇴할 때가 된 나이많은 선수. 보통 지명타자로 나오거나 1루수로 출장

- 수비툴 : 수비를 엄청나게 잘해서 수비로만 1인분 채우는 선수. 대부분 유격수나 포수.

- 1루수를 제외한 내야수와 포수는 우투만 가능.

- 포지션별 수비력 중요도는 유격수 > 2루수 >>> 3루수 >>> 1루수 > 외야수

- 포수는 수비는 기본, 타자와 수싸움을 해야함. 그라운드의 사령관. 투수타자 합쳐서 모든 선수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플레이어.

경기장(구장별 홈런 수 정도 의미있을 듯)

- 서울 잠실 야구장(두산, LG) : 좌우펜스 - 100m, 센터 - 125m, 펜스높이 - 2.6m, 가장 넓은 구장이라서 투수 친화적 구장.

- 서울 고척 스카이돔(키움) : 좌우펜스 - 99m, 센터 - 122m, 펜스높이 - 4m, 평균보다 조금 큰 편, 유일한 돔구장이라서 날씨에 관계없이 경기가능, 취소경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유리함.

- 인천 행복드림구장(SK) : 좌우 95 m, 센터 - 120m, 펜스 높이 2.8 m, 평균보다 작은 구장이라 타자 친화적 구장.

- 수원 KT 위즈 파크(KT) : 좌우 펜스 - 98m, 중앙 - 120m, 펜스 높이 - 4m, 평균크기의 구장

여기까지 수도권 구장이라 지방 구장보다 이동시간이 짧아 선수들의 피로누적이 덜함.

-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한화) : 좌측 펜스 - 98.6 m, 우측 펜스 - 100 m, 중앙 - 122 m, 펜스 높이 - 좌우 3.2m, 중앙 4m, 타자 친화적 구장.

-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삼성) : 좌우 펜스 - 99.5m, 센터 - 122.5m, 좌중/우중 펜스 : 107~108m, 펜스 높이 : 3.6m, 구장의 모양이 부채꼴 모양이 아니라 외야에 각진 부분이 있어서 타자 친화적 구장에 더 가까움, 16년 개장 신축구장.

- 부산 사직야구장(롯데) : 좌우 95 m, 중앙 118 m, 펜스 높이 4.8 m, 구장은 그리 크진 않지만 펜스 높이가 구장 중 가장 높음.

- 창원 NC 파크(NC) : 좌우 102m, 중앙 122m, 펜스 높이 3.3m, 좌우길이는 잠실보다 크지만, 중앙은 작다, 바람이 많이 부는 구장이라 타구의 변수가 많다, 19년 개장 신축구장(가봤는데 개좋다 진짜)

-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기아) : 좌우 99 m, 중앙 121.9 m, 펜스 높이 3.1 m, 14년 개장 나름 신축

구단별 상황 성격 모기업

- NC : 모기업 지원 제일 좋음, 신축구장 + 양의지 FA, 앞으로도 큰 손으로 선수 필요하면 잘 사줄듯. 신생 구단 특별지명으로 뽑은 신인선수들이 지금 전성기(박민우, 나성범)

- 롯데 : 모기업 지원이 많긴한데, 구단이 잘 쓰지를 못함, 그래도 뭐 FA 영입은 많이해서 꼴찌는 안함. 프런트가 꼴런트라서 구단 운영이 개판임(선수단 CCTV사건). 꼰머호가 아직 4번타자면 말 다했지.

- 기아 : 쓸 때는 씀. 최형우 사고, 김세현 트레이드로 우승도 하고, 윈나우를 할 줄 앎(09, 17). 해태 왕조의 자존심. 역대 최다 우승팀(V11).

- 삼성 : 현질 오지게 해서 삼성왕조 건설, 15년 도박 이후 떡락, 이유는 모기업 지원도 줄고, 현질만 하다보니 선수 육성을 잘 못함. 그래서 16년부터 쭉 하위권. 그래도 하위권 하는 동안 신인들은 꽤 잘뽑고 있고, 신인 육성이 어느정도 되는 것 같음(김지찬, 김윤수, 최채흥).

- 두산 : 모기업 지원 뒤에서 2등, 최근 몇 년 간 국대 주전급 선수들을 1년에 1명씩 잃고 있음(김현수 – LG 주장, 민병헌 – 롯데 주장, 양의지 – NC 주장). 그럼에도 전력 누수에 티가 안남. 화수분 야구의 대표구단. 가장 먼저 신인육성에 초점을 맞춘 팀. 현재 두산 왕조 진행중.

- KT : 10번 째 구단. 모기업 지원 나쁘지 않음. 만년 꼴찌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6위하고 눈을 뜸. 올해 현재 공동 4위. 만년 꼴찌를 하다보니 괜찮은 어린 선수들이 많음(강백호, 소형준)

- SK : 외부 FA 영입이 잘 없음. 내부 FA 영입은 혜자. 홈런 공장. 18, 19 2위에 18은 코시 우승했는데 19에 플옵에서 지더니 올해 떡락. 감독 염갈량 몸이 안좋아서 시즌 아웃

- 키움 : 별명 겆. 거지라서. 모기업이 없음. 키움은 네이밍 스폰서. 스폰서와 광고비로 구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FA 없음. 그래도 야구 잘하면 연봉은 잘 챙겨줌. 몇 년 전에 선수 장사로 이면계약하고, 공금 횡령해서 구단주 감방에 있음. 돈이 없으니 신인육성 두산 다음으로 잘함. 트레이드로 준주전급 내주고 신인 유망주 잘 데려옴. 10개 구단 중 가장 젊은 팀.

- 한화 : 모기업 지원은 평범한 편?(잘 모르겠음). 팀 문화 자체가 선수들 스스로 훈련하는 문화가 없다고 함. 그래서 못하는 듯. 신인육성도 잘 못해서 10개 구단 중 가장 늙은 팀으로 알고 있음.

- LG : 모기업 지원 쓸 때 씀. 육성을 잘 못하는 듯. 투수들이 잘함(일언 매직). 최근 팀방어율 1위 자주 함. DTD(Down Team is Down). 시즌 초중반에 잘하다가 절반 지나고나서부터 귀신같이 내려감(근데 올해는 안내려감, 투수들이 겁나 잘해줘서 인듯).

드래프트

1. 신인 지명

- 1차 신인드래프트 : 구단별 동등하게 지역 출신선수 1명씩 지명(서울권 3팀은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지명)

- 2차 신인드래프트 : 전년도 성적(포스트 시즌)의 역순으로 각 구단이 라운드별로 1명씩 지명. 10라운드까지 구단 당 10명씩 지명.

2. 2차 드래프트

- 2년마다 시행하고

요일